



△ 회원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교외인 파라마타의 여러 묘지를 청소하고 있다.

개척자 유산 기념 세계 봉사의 날

대관장단은 1997년 7월 19일을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계 개척자 유산 기념 봉사의 날로 선언했다. 일부 지역 대표들이 보내온 보고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행해진 수천 가지에 이르는 말일성도 봉사 프로젝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의 볼캠 힐 스테이크에서는 80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역 내의 보호지에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시드니 파라마타 스테이크 내의 영국인, 사모아인, 통가인, 베트남인 등의 단위 조직에서 회원들이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분산하여 식수, 수목 정지, 자연 정화 돕기 등의 다채로운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파라마타 스테이크의 다른 단위 조직 회원들은 유서 깊은 성공회 묘지를 깨끗이 청소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내의 여러 와드/지부 회원들은 삽이며 빗자루, 갈퀴, 쓰레기통 등을 갖추고 도심 공원이며 시장, 주차장, 기타 공공장소 등을 말끔히 청소했다. 바일렘돌프 시장은 이같은 봉사는 요즈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평했다.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인 시그프리트 바텔은 이렇게 간증했다. “오늘 함께 봉사하고 있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봉사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

제3지부 회원들이 지역 내의 한 초등학교에 모여 내부를 정비하고 페인트 칠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 일이 하루 이상 걸릴 것이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되돌아 와서 그 일을 끝마치기로 만장 일치 결의를 했다. 실제로 그들은 원래 목표인 150시간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봉사를 하였다.

7월 19일 저녁에, 지부에서 물몬경, 회복, 1847년의 개척자 여행, 동구 유럽에서의 최근 교회 역사 등에 관하여 선교 전시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150주년 개척자 기념 행사 로고가 새겨진 이름표를 달고서 방문객을 맞았으며, 2시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은 음악 발표회와 1847년 개척자 여행에 관련된 비디오를 시청했다.

어느 한 지역 TV 방송 기사는 앤드류 벤 지부장에게 “이전에도 많은 종교적 공연을 본 적이 있지만, 이처럼 훌륭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회원들의 헌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사디니아 지방부 회원들은 총 613시간의 봉사를 했다. 칼리아리 지부의 회원들은 성모 테레사 수녀회의 수녀들을 도와 음식을 준비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였다.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맞고자 홀에 음식을 마련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말끔히 치우는



△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회원들은 공공 장소들을 말끔하게 청소했다.



△ 포르투갈의 캄피니 지부 형제들이 재활동을 위해 엑스레이기 판을 분류하여 다발로 묶었다.

일에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봉사한 다른 종교의 회원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피에로 에스피스 지부장이 말했다.

밀란 선교부 소속의 코모 지방부에서는 약 80여 명의 회원들이 코모 호수 부근의 유원지, 유명한 두 기념비 주변의 땅, 회합이나 대회의 개최지로 사용되는 큰 별장의 정원 및 공원 등을 치웠다. 밀란의 또 다른 곳에서는 회원들이 밀란에서 제일 큰 공원에서 휴지도 줍고, 잡초도 뽑고, 나무도 심었다. 회원들은 또한 묘지 주변의 잡초를 뽑고 청소를 했다.

파도바 선교부 내의 트리스테 지부에서는 약 50명의 회원들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5,000여 명에 이르는 이탈리아계 유대인, 군인, 정치인 등이 죽었던 예전의 나찌 강제 수용소 터에 세워진 한 박물관의 여러 방들을 청소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손질하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베로나의 회원들은 성안으로 들어가던 옛 성문 부근의 버려진 공원을 말끔히 치우고, 그날 저녁 무렵에 일부 회원들은 한 여성 장애인 가정에서 일을 도왔다.

한국

한국 전역에서 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회원들이 12,000시간 이상을 봉사하는 데 바쳤

다. 한국 정부에서 제정한 문화 유적의 해의 취지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봉사 활동이 문화 유적지 청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산 스테이크 회원들은 동래산성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휴지를 주웠다. 서울 스테이크 회원들은 널리 알려진 경복궁에서 봉사했고, 서울 스테이크 회원들은

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지역을 위한 비이გი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기쁨을 느꼈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지방의 10개 스테이크에서 함께 모인 3,000여 명 가량의 회원들은 14 헥타르 규모의 공원에서 풀도 베고, 가지치기도 하고, 잡목도 잘라내고, 길도 쓸고, 쓰레기도 줍고, 의자와 연석에 페인트 칠도 하였다. 많은 가족들이 아침 여덟 시가 되기도 전에 봉사 활동에 참여하려고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발자취에 신앙이’란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

네덜란드

헤이그 스테이크, 조에테미르 와드 회원들은 세 가지 봉사 활동을 했다. 농장이 있는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아이들은 젖소, 염소, 양, 닭, 칠면조, 토끼, 당나귀 따위의 가축들에 관해 배웠고, 회원들은 울타리도 고치고, 밭에 썩레질도 하고, 양계장 아래에 타일도 새롭게 깔았다. 회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한 요양원을 방문하여 함께 오락도 하고



△ 한국 안양 스테이크 회원들이 강 유역의 보호 지대를 청소하였다.

산보도 하였다. 회원들은 또한 일부 상점 주변의 공공 장소를 청소했다.

와드 공보 책임자인 마르크 문렌버그 형제는 “우린 그날 세계를 휩쓸고 간 사랑, 봉사 희생의 파도의 일부가 되었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 예배실에서 간단한 모임을 갖고 출발할 때, 일본의 회원들이 막 그날의 봉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봉사를 마감하려고 스테이크 바베큐 모임에 함께 모였을 때, 브라질 회원들이 막 그날의 봉사를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캄파나 지부의 형제들은 국제 의료 협회에서 봉사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엑스레이 기판을 분리하고 그것들의 재활용을 위해 다발로 묶는 일을 했다. 협회의 책임자가 그들에게 가능하다면 매달 다시 와서 그 일을 해 줄 것을 부탁하자 형제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동의했다. 지부 회원인 마누엘 칼바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은 내게 간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 주었다.” 지부의 자매들은 양로원에서 연로한 할머니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마리아 오구스타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양로원에서 주님을 섬기고 친절한 할머니들을 돌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마친 후에, 형제·자매들은 함께 모여 간증을 나누었다.

스페인

마드리드 스테이크의 알칼라 드 헤나레스 와드 회원들은 알카라다 드 헤나레스 지방의 유서깊은 16세기 촌락 부근의 자연 공원 산책로와 언덕에 흩어져 있는 휴지를 주웠다. 스테이크의 다른 지역에서는, 마드리드 제2와드와 마드리드 제4지부가 공원 의자에 새겨진 낙서들을 지웠다.

작은 염호를 내려다 보는 별거벗은 구릉지에 사라고사 지방부의 회원 8명이 국가에서 공

급해 준 소나무 외 여러 수종 1,000여 그루를 심었다. 봉사 활동을 마친후, 봉사 활동 내용을 기록한 카드를 넣은 풍선을 띄워 보냈다.

러시아

모스크바 북동쪽에 위치한 포크로브스키 지부의 회원들은 인근의 한 고아원에 모여 놀이터를 새롭게 단장했다. 회원들은 기부받은 파랑, 오렌지, 노랑, 초록, 빨강색 페인트로 그네며, 미끄럼틀이며, 여러 다른 놀이 기구들에 페인트를 칠했다.

모스크바 강과 전철 선로 사이에 위치한 우정 공원에서, 세베로-자모스크보레츠키 지부 회원들은 공원 관리인들과 함께 담뱃을 굵어 모으고, 콘크리트 블록들을 옮기거나 물어버리고, 아름답디 수목들의 토양을 부드럽게 해 주었다.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스베틀라나 바피나는 “그들은 매우 놀랐었죠.”라고 말했다. 여태껏 어떤 사람도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는 눈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보고서야 몹시 놀라워 했다.

미국

뉴올리언스 루지애나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에 누비 이빨을 기증했으며, 칼메타 국립 묘지에서 묘석 1,000여 개를 깨끗이 씻었다. 스테이크의 어린이들은 양로원을 방문하여 준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과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면담하는 것을 녹화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과거와의 관계를 체험하고 과거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라고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인 마리 윌리스가 말했다.

샬롯 북 캐롤라이나 중앙 스테이크에서는레이크 노만 와드 회원들이 헌츠빌에 있는 로젠왈드 학교를 보수했다. 그들은 잡목들을 말끔히 없애고, 쓰레기를 치우고, 표백하고, 균열된 틈을 막고, 페인트 칠을 했다. 일하던

중에 양봉인을 데려와 건물 벽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벌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야 했다. 릭 위커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애향심과 봉사 정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프로몬트의 회원들은 올론즈인디언 묘지에서 1,500시간의 봉사를 했다. 그들은 잡초를 뽑고,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표지판을 새롭게 하고, 나무를 심는 수고를 했다. 이 오랜 묘지는 캘리포니아 인디언들이 스페인인과 앵글로 색슨족과 어떠한 접촉도 하기 수세기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곳이다.

새로운 대회관 건축을 위한 기공식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의 새로운 대회관이 건축될 부지에서 1997년 7월 24일 개최된 기공식의 현납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15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계곡에서 쟁기를 사용하여 땅을 판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첫삽질을 합니다.” 199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힝클리 대관장에 의해 발표된 이 대회관의 수용 인원은 태버나클의 수용 인원의 세 배 이상이 되는 21,000명이 될 것이다. 템플 스퀘어의 북쪽에 있는 경



△ 오른쪽부터: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의 새로운 대회관의 기공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촬영: 태드라 헬블린

사지와 조화를 이루어 지어지도록 설계된 이 대회관은 2,000년 4월에 열릴 연차 대회에 맞추어 완공될 예정이다.

헝클리 대관장은 또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이와 같은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지나간 다음 시대에는 더 큰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회관은 연차 대회, 종교 행사, 연극, 교회의 다른 대회, 그리고 적절한 문화 공연과 행사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템플 스퀘어에 있는 유서깊은 대버나클은 계속해서 물론 대버나클 합창단의 방송과 녹음과 기타 행사를 위한 장소로서 주로 사용될 것이며, 한편 새로운 대회관에는 음악 공연을 위해 파이프 오르간이 비치될 것이다. 대회관 내에는 반원형으로 3층이 만들어져서 좌석이 배치되며, 메인 홀에는 400명이 앉을 합창단석과 지도자들이 앉을 144석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대회관에는 1,000석의 극장, 지하 주차장, 37미터의 중탑 그리고 테라스 지붕의 조경 시설이 포함된다.

기공식에는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참석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과 기타 역원들이 참석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기공식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이 수년 동안 마음속에 이리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퍼레이드와 축제를 상상하며,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막론하고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수많은 청중을 위해 공연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새로운 대회관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면서 “교회의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그리고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 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 지구의 구석진 곳에서 연차 대회에 참석하러 오는 회원들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 약 50,000명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바로 이곳이다 주립 공원'에서 1997년 물론 트레일 포장마차 행렬을 맞이했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포장마차 행렬을 맞이하며 인사하는 헝클리 대관장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이처럼 멀고 어려운 여행을 마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솔트레이크 시티의 이미지레이션 캐년의 밑에 있는 '바로 이곳이다 주립 공원'에서 7월 22일 개최된 환영식에서 1997년 물론 트레일 포장마차 행렬의 회원들에게 말씀하며 이렇게 부언했다.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모두가 그때의 일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옛날의 여행을 재연하기 위해 4월 21일에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를 떠났던 개척자 대대의 도착을 약 5만 명의 군중이 현장에서 목격했다. 이들은 개척자들이 이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평원을 지나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장장 1,600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다.

“본인은 물론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고된 여행을 한 것을 이처럼 감동적으로 재연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다. “물론 개척자들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찍이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예배할 자유를 찾아 미대륙으로 여행하여 온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각고의 노력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 시베리아에서 회원들이 만든 손수레. 이 손수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17개의 도시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러시아에서 온 아이리나 클루시나 보그단과 우크라이나에서 온 타마라 비지어: 7월 23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에게 전달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회 회원들의 인사가 담긴 3,000통의 간증과 편지뿐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 다채로운 의상을 입힌 30개의 인형으로 가득 찬 손수레는 열차편을 이용하여 여러 도시를 거쳐서 운송된 후 마침내 유타에 도착되어 옛날의 개척자들의 여행을 재연한 물론 트레일 포장마차 행렬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올 때 합류했다. 손수레는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추가되었다. 사진 촬영: 태오라 햄블

서울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9월 6-7일 양일간 북 아시아 지역 회장인 렉스 디 피네가 장로의 감리 하에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오희근 형제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신앙의 선조인 개척자들의 희생과 용기를 본받아 하야 한다고 말씀했으며, 현재 성전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삼청 와드의 최옥환 형제는 서울 스테이크의 연혁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신앙의 선조이며 개척자라고 말씀하였다. 이어서 지역 칠십인인 고원용 장로는 서울 스테이크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함께 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였으며, 피네가 장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회생에 대해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일요일 총회에서는 스테이크 행사에서 7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던 이근혁 스테이크 부장과 제1보좌인 박광식 형제, 제2보좌인 오희근 형제가 명예롭게 해임되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오희근 형제, 제1보좌로 이은상 형제(성동 와드), 제2보좌로 박삼근 형제(신당 와드)가 부름을 받았다.

말씀 순서에서 해임되는 이근혁 부장은 13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와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기간동안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했으며, 박광식 형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부름 받은 오희근 스테이크 부장, 이은상 형제, 박삼근 형제는 주님의 부름에 더욱 충실하여 서울 스테이크가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네가 장로는 이번 서울 스테이크 대회에서 해임된 스테이크 부장단의 수고에 감사했으며, 새로 부름 받은 스테이크 부장단을 중심으로 서울 스테이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노력을 하라고 권고했다.

총 465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서울 스테이크 합창단은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와 일요일 총회에서는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장)를 잘 준비된 가운데 훌륭한 합창을 하여서 모임이 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신당 와드의 이용희, 선우현, 박웅, 김의호, 박문일, 삼청 와드의 신동하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최일광)

서울 동 스테이크

리아호나 축구단 창단



서울 동 스테이크는 리아호나 축구팀을 창단하고 지난 8월 15일 창단식 및 시범 경기를 가졌다.

이날 창단 행사에는 스테이크 부장단을 비롯해서 축구에 관심이 있는 많은 형제들이 참석했으며, 시범 경기를 위해 안양 스테이크 시흥 와드의 하나로 축구단이 초청되었다.

구분동 형제를 고문으로 한 리아호나 축구단의 현재 등록 인원은 38명이며, 앞으로 각 와드와 지부에 한 팀씩을 창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동대문 상고에서 정기적으로 연습 및 경기를 갖게 되는 리아호나 축구단은 이를 통해 형제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형제들 간의 우정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아호나 축구단과의 경기를 원하는 팀은 상계 와드의 박순철 형제(전화: 02-939-6084)에게 연락하면 된다.

서울 북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서울 북 스테이크는 지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름"(엘마서 37:44)을 주제로한 이번 대회의 일요일 총회에서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켜 조직을 강화하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신앙을 강화함"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이어서 서울 서 신학 연구원의 이도환 원장은 "개척자 150주년을 상고하면서"를 주제로 국내 신문 기자들과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했던 소감을 나누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개척자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였다.

또한 총정 와드 감독인 정문영 형제는 "우리는 겸손하게 신권 지도자를 지지하고, 스테이크 부장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과 봉사로써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했으며,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정결함과 개개인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힘이 된다고 우리의 주변을 잘 정리하고, 항상 준비하며, 성전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대회에는 533명의 서울 북 스테이크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영적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장승재)

홍제 지부 축구단 창단



서울 북 스테이크 홍제 지부(지부장: 정동찬)에 축구단이 창단 되었다. 홍제 지부 회원의 오랜 성원과 열망으로 이루어진 열매라 할 수 있는 홍제 축구단은 첫째 축구를 통해 형제애를 돈독히 하여 회원이 하나가 되며, 둘째, 새로운 회원과 활동이 저조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셋째, 개인과 가정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구단의 명칭은 인왕 타이거스로 붙여졌고 한덕상 형제를 단장으로 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인왕 타이거스 팀은 지난 9월 6일 창단식을 갖고 일산의 정발산 공원에서 원당 와드와 친선 경기를 가졌다.(김동섭)

대구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9월 6~7 양일간에 걸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 더니 마침내 충만함을 받으시더라"(교리와 성약 96:13)라는 주제로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 하에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3개월 동안 준비해온 이번 스테이크 대회의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엘마서 22장 15~16절을 인용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신앙을 갖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많은 성도들이 모인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차대환 형제는 교회 발전의 원동력은 청소년에게 있으므로 그들이 발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하나님의 영은 매우 감미로우며 하나님의 영의 느낌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 모습에서의 세상의 적인 사탄의 모습은 사라집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좀 더 영의 음성에 귀기울여 줄 것을 권고했다.

490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일요일 총회에서는 박종진 감독, 김병만 축복사, 리시먼 자매, 리시먼 부산 선교 부장이 주제에 맞춰 말씀을 전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에서 충만함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하여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대회는 잘 준비된 합창단의 찬송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느낌을 전해주었다. 한편 수성 와드의 박태우, 도용환, 이현우, 진성환 형제, 중리 와드의 김병국, 이동철 형제, 포항 지부의 김형일 형제가 댄기세탁 신권의 장로로 대명 와드의 변창훈 형제는 대제사로 지지 받았다. (김민수)

선교 대회

지난 10월5일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귀환 선교사, 선교 책임자, 와드·지부의 청년·청녀 회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선교 대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10월 20일 선교 사업을 떠나는 문수진 자매가 선교 사업 준비 과정과 준비하는 동안 받은 주님의 축복에 대한 간증을 했으며, 전진걸 형제, 구성진, 이상교, 이준호, 김제우, 류무일가 현재의 선교 사업에 대한 말씀과 간증을 전했다. 또한 김정희 자매는 자신이 변화해야 다른 사람도 변화

시킬 수 있다고 말씀했으며, 스테이크 선교 부장인 김상현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눈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이어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차대환 형제는 청소년들이 지금부터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돕자고 말씀했으며,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리와 질서가 필요하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이번 스테이크 선교 대회를 통해 성도들은 새롭게 선교 사업에 대한 각오를 다질 수 있었으며, 마음에 새로운 활기와 영적인 임을 얻을 수 있었다.(김민수)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개척자 유산 선교 전시회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감독: 변춘구)에 서는 지난 9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척자 유

"모르몬교도 1,760km 대장정 사진·영화로 보세요"

마산교회, 6~7일 「개척자의 날 기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영령 모로몬) 마산교회(와드)를 만들
고 감독: 「개척자의 날」 1965년 7월 6일 6~7일 양일간 서부
개척교회 사진전과 영화 「유산」을 상영한다.

「개척자의 날」 1965년 7월 6일 모로몬교도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가
출발하는 동리 온갖 박해를 피해 미국 뉴욕에서 서부지역으로 이동을
시작, 호라이스~마우리~일리노이~아이오와주 등지로 행진을 계속
하며 사막지대의 솔트레이크지역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이날에 성대한 행사를 갖는다.

올해는 1965주년을 맞아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5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 서부이동행렬을 갖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세계각국 모로몬교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다. 마산와드에서
는 6~7일 양일간 모로몬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뉴욕에서 솔트레이크
까지 1760km의 대장정을 하면서 겪은 고난을 담은 「유산(L
egacy)」이란 제목의 영화를 상영한다. 또 대장정 동안 기록한 사진
30여점도 함께 전시한다.

한편 말일기도 예수그리스도교는 6:25에 미국에 의해 한국에 전도해
결함에는 마산스테이크(Slake)교구 산하에 9개의 교회(와드)가 있
다.

<新華盛기>



모로몬교도의 서부개척사를 그린 영화 「유산」의 한 장면.

△ 마산 와드에서 가진 개척자 유산 선교 전시회를
보도한 경남일보 9월 6일자 신문

산 150주년 기념 행사로 선교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 회원들은 가족, 친척, 친구들과 지역 유시들을 초대하여 마산 지역 사회에 교회를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경남 신문에서는 선교 전시회와 개척자 150주년 행사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마산 와드 선교 책임자인 김구채 형제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봉사하였다.(이전우)

전주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9월 20-21일 양일간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의 감리로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교리와 성약 82편 14절을 주제로 한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해온 김종갑 스테이크 부장이 명예롭게 해임되고, 이효중 형제가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말씀 순서에서 해임된 김종갑 스테이크 부장 부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부름을 수행하면서 힘들었지만 큰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이어서 이효중 신임 스테이크 부장은 김종갑 부장이 멀리 위도에 근무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완수했다고 말하고, 자신의 부름에 대해 “제가 처음 이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부름을 받고 불평하던 것이 생각났고 그 때 모세의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운 장로는 “이 복음은 전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를 대표합니다. 모범을 보이고 선교 사업을 행하십시오.”라고 말씀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 중앙 와드 심인섭 형제가 대제사로, 군산 와드의 강영석 형제는

장로로 각각 지지 받았다.(강영옥)

광주 스테이크

순회 강연회

지난 9월 20-21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와 국제 변호사겸 방송인인 로버트 할리 형제를 초청하여 순회 강연회를 가졌다.

먼저 20일 모임에서 할리 형제의 아내인 명현숙 자매는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했고, 할리 형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전하며, 가족의 중요성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담대하게 전해 주었다. 이어서 많은 구도자와 회원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싸인회와 사진 촬영을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1일 모임에서는 브라운 장로가 초청되어 남한의 1957년과 비슷한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하고 솔직하며, 재능이 많은 북한 사람들, 농작물을 얻기 위

해 일하는 북한의 군인과 어린이들, 섬세하게 계획되고 개발된 평양의 거리, 내부 정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변화 등에 대해 말씀하며, 현재 북한이 직면한 재앙은 주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하기 위해서이고, 현재 남한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한국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금식 헌금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순회 강연회는 지역 신문인 사랑방에 소개되기도 하였다.(박유미)

체육 대회



지난 10월 3일 광주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나주 동신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환영사에서 체육 대회는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성도애가 형성된다고 말씀하였다.

오전은 각 조직별로 오후에는 와드 및 단체 경기를 하였는데, 오전 모임에서 초등 협회는 풍선 게임, 물풍선 게임, 장애물 경기, 보물 찾기 등을 하였고, 청소년은 신죽구, 물풍선 농구, 릴레이를 하였으며, 독신 성인은 장애물 릴레이, 오리물기, 바구니에 물풍선 넣기, 기혼 성인은 발에 풍선 묶고 터트리기, 인간 줄다리기, 부부 손잡고 축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와드/지부별 대항전에서는 형제 축구에서 총장·백운 연합팀이 우승하였고, 마라톤에서는 총장 와드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인 알렌 장로, 초등 협회는 총장 와드의 최준규 형제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박유미)



체육 대회



지난 10월 3일 순천 지방부 체육 대회가 사상대 체육 공원 운동장에서 순천 지방부 소속 회원 가족과 구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조중현 지방부장의 환영인사와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지부별 대항이 아닌 혼합팀을 구성하여, 여수·여천 지부가 힐라맨팀, 순천·광양 지부가 붉은 매 팀으로 편성되어 열띤 응원 속에 경기가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자매들의 피구와 줄다리기, 청남·청녀의 인간 농구, 족구 경기가 열렸고, 오후에는 발야구와 릴레이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참여한 축구 경기가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릴레이 경기 때는 자매들이 몸을 아끼지 않는 투혼을 발휘하여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점심으로 마련된 푸짐한 먹거리는 각 지부별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분담하여 준비하였으며, 순천 지부 남상모 형제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직접 감과 밤을 가져와 회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랑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회 결과 4경기에서 승리한 여수·여천의 힐라맨팀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도 피곤치 않는 강한 육체를 소유하고, 여분의 힘으로 주님의 사업에 충실하자는 지방부장의 말씀이 끝날 때 짙은 석양 빛과 가을 단풍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회원들의 마음이 붉은 색으로 하나되어 물들고 있었다.(장봉률) □

성스러운 숲에서 솔트레이크까지

(인천 스테이크 성지 순례 여행기)

1. 2년 여에 걸친 철저한 준비

인천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9월 11일 김포 공항을 출발하여 9월 21일에 귀국하는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왔다. 이 여행은 부장단을 비롯한 감독, 고등 평의원 등 스테이크 내 신권 지도자들과 기타 많은 역원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시온의 인천 스테이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의 의지에 따라 2년전부터 계획되었다. 당초 80여 명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직장 문제, 개인 사정 등으로 52명만이 참여하였다. 미국 현지와 숙박 사정과 날짜별, 시간대 별로 방문할 곳의 스케줄 등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번 여행은 교통 여건과 지리적인 사정상 교회 본부가 있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요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현을 본 숲 속과 금판을 발견한 구모라 언덕까지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 "그의 열매"를 보고 확인한 훌륭한 나무의 모습

포틀랜드 공항을 거쳐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한 일행은 「Great Salt Lake Beaches」에서 염분 함유량이 25%나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 곳이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계획된 일정 에 의해 템플 스케이, 방문자 센터, 태버나클, 교회 역사 박물관과 데저렛 인더스트리

와 바로 이곳이다(This is the place)주립 공원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은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때때로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150년 전 단 한 그루의 나무 밖에 없었다는 사막을 오늘날의 도시로 일구어 놓은 것에서 신앙의 안식처에 대한 초기 성도들의 시온 건립에 대한 신앙과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축복이 아니었던들 가능치 않았으리라.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떨어진 돌들로 40여 년에 걸쳐 솔트레이크 성전을 짓는 모습을 상상할 때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다. 도착 다음 날 새벽에 대리 엔다 우먼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향했다. 서울 성전과는 달리 성전 선교사들에 의해 라이브로 의식이 진행되었다. 전 담동 와드 감독이었던 이순호 형제는 이십 여년 전에 자신을 침례 주었던 선교사가 귀환할 때 "이 다음 해의 왕국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하며 헤어졌는데, 현재 치과 의사인 그 형제를 그날 해의 왕국실에서 만나는 큰 기쁨을 갖기도 하였다. 자유롭게 의사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 곳 성도들과 참다운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느끼는 훌륭한 시간을 가졌다.

목요일 저녁에 태버나클 합창단의 연습을 보기 전에, 자매 선교사의 안내로 템플 스케이를 구경하였다. 못조각이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태버나클의 섬세한 설계를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태

버네클과 어셈블리 홀의 기둥과 의자의 나무결 무늬를 일일이 손으로 그린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주님께 바치는 건물을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려 노력한 성도들의 자세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것은 희생과 신앙의 산물이었다.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영화 “유산(Legacy)”을 관람했는데,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온 선조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이처럼 훌륭한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을 더욱 많은 이웃에게 전파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하여야 할 책임이라고 느꼈다.

오후에는 “테저렛 인터스트리”를 방문하였는데 감독의 사인 하나만으로 궁핍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의복과 식품을 무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참사랑의 조직, 대형 유통 업체를 능가하는 엄청난 물량, 그리고 국내 어느 대기업보다도 뒤지지 않는 최신 유가공 시설과 물류 배송 시스템을 보고는 감탄과 함께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백성 중에 굶주리거나 헐벗는 자가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귀부로 느꼈다.

3. 리버티 감옥—아름다운 나무—카테이지 감옥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보았던 오늘날 후손들이 누리는 신앙적인 기쁨과 행복과는 달리 요셉스미스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되새기는 여정에서 화안들은 여러 번 가슴이 뜨거워지

는 것을 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야만 했다. 캔사시티 공항에서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로 이동한 일행은 1831년 ~ 1839년 사이의 미주리 주에 있던 성도들의 역사와 나무에서 솔트레이크까지 성도들의 이동에 관한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방문자 센터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38년 5월 예언으로 확인한 “아담 온다이 아만”을 보고, “파웨스트”를 지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고난 중에서 교리와 성약 121 ~ 123편의 계시를 받은 “리버티 감옥을 돌아 보았다. 그 곳에서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 그리고 시드니 리그돈 등 6명의 형제들이 비록 어둡고 혹독한 추위 속에 갇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모든 고난이 그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계시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힘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전시한 밀랍 인형들을 보았다. 그 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의 요청으로 찬송가 30장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렀다. 붉게 물든 눈시울을 닦는 일행의 모습에서 말일성도만이 통하는 “하늘의 언어”가 있음을 느꼈다.

이어서 1838년부터 1846년까지 아이오와의 해로를 정착지로 떠난 백여만 성도들이 머물렀던 미시시피 강가의 급하게 건설된 아름다운 도시 나무를 방문하였다. 이 곳은 나무 정장은 비록 폭도들에 의해 소실되었지만 성도들이 주님께 바친 희생과 신앙의 상징이었다. 나무 아래에 세워진 와드의 스테이크를 조각하고 1846년 1월은 기간이지만 정모들은 평화와 안정을 누렸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느 개의 도시 못지 않게 잘 정리

된 평화의 도시를 뒤로 한 채 또다시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 떠나야만 했던 당시 성도들의 아픔이 강가에 세워진 기념비에 잘 나타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카테이지 감옥을 방문하여 폭도들에 의해 순교하기까지의 상황을 재현하는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위대한 예언자에 대한 간증을 굳게 하였다. 설명을 마친 할머니 선교사가 눈물을 닦으라고 미리 준비한 휴지를 건네 주는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방문한 후 눈물을 흘리고 가는 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4. 첫번째 시험의 성스러운 숲—구모라 언덕—하모니, 사스케하나 강변

복음 선교사와 토론을 시작할 때 맨처음 듣게 되는 요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험을 본 뉴욕 주 팔마이라의 맨체스터에 있는 성스러운 숲 - 그림과 사진에서 본 그대로 하늘 높이 곧게 뻗은 나무에 둘러싸인 숲이었으며 그리스도라면 누구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픈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 곳에서 모두들 무릎을 꿇고 박동화 부장직 인도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 간절히 마음으로 감사와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요셉 스미스가 살았던 생각을 둘러본 후 금환과 우렁과 들림 그리고 가슴환이 문힌 구모라 언덕에 올라갔다. 금환을 받은 요셉이 그려진 기념탑에 모여 찬송과 하늘에서 온 천사를 불렀다. 구모라 언덕에서는 해가



다 여름에 물몬경의 역사를 공연하는 등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그 넓은 잔디밭에서 잠시 여행의 피로를 푸는 여유를 누렸다.

이어서 물몬경 번역을 도왔던 마틴 해리스의 농가와 피터 휘트머의 농장과 풍나무 집을 방문하였다.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은 물몬경의 번역이 완성되었으며 교회가 조직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 곳에서 당시에 사용하던 자그마한 책상과 은밀히 작업하기 위해 쳐놓은 커튼 등을 보면서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6명으로 시작한 교회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주님의 사업의 위대함에 고개 숙여 감사했다.

성지 순례의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아론 신권을 받고 때가 이르면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 받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하모니를 방문하여 사스케하나 강변에 세워진 기념탑을 보고 신권의 회복을 확인하였다.

5. 눈물도 잘 흘리는 미국 성도들

14일 안식일에는 캔사스시티에 있는 블루밀스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하였다.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이 있기 전 우리 일행이 특별 찬송으로 30장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렀다. 그 곳의 많은 회원들이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충분한 연습도 하지 못한 우리의 합창에 감동하는 그네들을 보며 모두가 참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지닌 분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행 일정이 중복되었던 관계로 여러 번 마주 친 노인 관광객(물론 회원들임)들도 구모라 언덕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는 모두가 껍작껍작 서서 경청을 하였고, 첫번째 시현을 본 성스러운 숲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쳤을 때에는 전에 불렀던 합창을 다시 한 번 들려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을 받고는 흔쾌히 불러 드렸는데 그때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안아 주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다. 아마 그 순간은 찬송을 부른 우리나라 듣고 계셨던 그 분들이나 모두가 천사들이었으리라!

6. 투자에 비해 소득이 너무 많았던 여행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건은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으며 집에 남아 있는 식구와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우려하셨다. 그렇지만 모두들 마음속으로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외치고 계획대로 진행했다. 탑승하기 전 이용상 축복사의 기도로 시작한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넘치는 축복 속에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일곱 번의 항공기 이동과 캔사스시티에서 나부까지의 450km를 비롯한 600km 이상의 버스 여행이 두 번씩이나 있었지만 모두들 피로를 느끼는 기색이 없었으며, 물과 음식이 바뀌었음에도 단 한 사람도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어 미리 준비한 약품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또한 그 넓은 대륙 속에서 현지 가이드도 없이 계획했던 유적지를 모두 찾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전세 낸 버스의 기사들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최명숙 자매의 도움이 지대했다. 또한 주님께 겸손히 간구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신앙의 힘도 컸다. 돌아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으로 모세의 백성을 인도하신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하는 기적의 나날들이었다.

어렵게 떠난 미국 여행 중에 "국회 의사당", "백악관", "링컨 기념관" 등을 비롯한 워싱턴의 여러 명소를 관광했고, 뉴욕에서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할렘 가" 등 이름난 곳을 돌아 보았다. 또한 지구 상의 모든 물을 한 데 모아 떨어뜨리는 듯한 자연의 기적,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는 주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겸허하게 설 수 밖에 없었다.

귀국하기 전에는 뉴저지 주에 있는 한인 지부를 찾아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 간에 안부를 확인하고 고국 성도들의 사랑을 전했다. 융숭한 저녁 식사 초대에 길영권 형제와 차수연 자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으로 화답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온누리 합창단 KBS홀 공연 CD와 박동화부장이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9월 21일 오후 5시 30분경 비행기의 랜딩 기어가 무사히 김포 공항의 활주로에 닿는 순간 마침내 안도하며 이번 여행에서 느낀 뜨거운 간증과 확신을 앞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인생 여정에, 그리고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다짐하며 아쉬움 속에 헤어졌다.(이성렬) □



성지순례 여행을 주관한 박동화 인천 스테이크 부장과의 인터뷰

문: 지금까지 52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이런 여행을 다녀온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는지요?

답: 주님 사업은 교회의 모든 역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간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 스테이크에서는 그동안 교회 역원들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고 현대의 개척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도록 해왔는데, 올해는 늘 말로만 들어왔던 미국 개척자들의 신앙의 여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예언자 요셉스미스가 말일에 복음이 회복되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였다는 확고한 간증을 심어 주고 싶었습니다.

문: 이번 성지 순례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 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솔트레이크의 "테저렛 인터스트리"에서 받은 느낌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시온의 백성 중에 헐벗거나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에서 한국은 언제쯤이면 저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감독의 창고』- 다양한 식품과 의류, 그리고 웅만한 대기업 물류 창고를 방불케하는 대형 창고와 의류 공장, 유가공 시설 등을 보면서 참된 교회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문: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요셉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물몬경의 번역을 완성한 뉴욕 주 페이엠티의 피터 휘트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곳에 최초로 교회가 조직된 곳임을 기념하고, 방문자 센터 내에 보관된 타임캡슐을 2000년 즉 최초의 교회 조직일로부터 200년 후에 개봉한다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 아마 그때쯤이면 우리의 지상 생활에 큰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의 제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한국 교회의

개척자 이야기

박병규 형제

(한국 교회 교육 기구 대표, 한국 선교사 훈련원 원장)

1. 교회를 찾아

저는 1936년 9월 21일(음력)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신흥동에서 저희 부모의 아홉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는 목포에서 다녔습니다.

그 후 1957년에 한국 외국어 대학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성동구 도선동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였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광주 수피아 여고 뒤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1956년에 그곳에 참석하여 좋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 그 교회와 같은 교회인이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락동에 있는 교회를 찾았을 때 선교사 한 분이 뒤편에 나와 계셨습니다. 친구와 나는 그 선교사와 인사를 나눈 후 교회에 참석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한마디로 영어는 배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왔으니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요일에 상향회가 있어서 회원들이 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뜻밖에 대학 클럽에서 알고 지내던 이호남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반겨 주시면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런 후에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도 해 주시고 계속 참석해 보라고 권유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처음 두 번 정도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석하였고 그 뒤로는 교회가 좋게 느껴져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따뜻한 사랑과 친절이 그런 느낌을 준 것이라 생각 됩니다.

약 6개월 동안의 구도 끝에 1958년 3월 23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첫 번째 부름은 상향회장 보좌였습니다. 그 때에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일, 공보원에서 영사 필름을 빌려다 감상했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유락동에 나가던 때에 이호남 형제님을 비롯하여 한인상, 차종환, 홍무광, 남영진, 전종철, 손승운, 박주인, 송태섭, 송정섭, 최장식, 김양범, 김수영, 류종렬, 손재만 등과 같은 훌륭한 형제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종철 형제님과는 같은 날 침례를 받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교회의 선구자이신 김호직 박사님을 뵈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박사님은 두분 따님들과 교회에 나오셔서 늘 앞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공과도 가르치

시고 우리 모두를 따듯이 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으셨으나 겸손 하셨으며 주님의 일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은 저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 다."고 권고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와 제가 주님을 알게 된 경로를 돌이켜 보면 끊임없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 도움은 제가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서 주이셨습니다. 한번 참석했던 어느 교회에 대한 느낌, 서울로의 진학, 이호남 형제님과의 만남, 여러 회원들의 친절과 도움 등,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주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광주 교회에서의 생활

저는 1962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7월에 모교인 학다리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2년만 있겠다는 계획으로 그곳에 갔는데 4년 여를 그 곳에서 보냈습니다. 1963년에 결혼을 하고 1966년 3월에 광주 사레지오 여고로 전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으므로 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교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 뿐 본의 아닌 비활동이 되었습니다.

그 해 8월 저는 전남대에서 교원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호남 형제님이 그 곳 까지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학다리 고등학교와 저의 시골집까지 찾아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은 광주에 교회를 세울 계획을 전해 주시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그해 8월 말 벨든 힐, 사무엘 퓨, 마크 피터슨, 서원 장로 등 내분의 선교사들이 광주에 오셨습니다. 9월 4일에 첫 번 주일 학교를 가졌는데 장소는 선교사님들이 일시 투숙하셨던 광신 여관 201호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소망했던 저의 오랜 간구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임영방 형제와 저, 황선숙, 양웅철, 양현철, 양해일 등으로 생각 됩니다. 황자매님은 비회원이었지만 아드님이 하와이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광주에 들어오면 도와 주시길 부탁하였다 하시며 그 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다음 주 부터 황자매님댁의 대청마루에서 예배를 보도록 해주셨고, 그해 12월까지 그곳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그곳은 월산동 25번지로서 지금은 우체국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해 12월 3일 광주에서 첫번째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그 침례식에서 이재수 형제님과 그분의 아들인 강국, 딸 복숙, 황선숙 자매님과 아들 양웅철, 양현철, 조카 양해일과 정현기, 이규중 그리고 저의 아내 이영지 자매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재수 형제님은 그 뒤 김종택, 정덕균, 윤상현 교수님 가족, 정병주, 서익주 형제님 가족 등 다수를 주께 인도 하셨습니다.

회원들이 증가 함에 따라서 1967년 1월에 남동에 전세 건물을 얻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당구장으로 썼던 건물의 시멘트 바닥에 겹겹이 붙은 흙을 긁어 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재수 형제님이 집회실 벤치를 마련하는데도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무렵에 최송민 형제님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그 후 자녀들과 함께 교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에 있을

때 광주 지부가 조직 되었습니다. 그 때가 1967년 11월 3일로 기억 됩니다. 저는 지부장으로 정연기 형제와 서익주 형제님이 보좌로 임재욱 형제님이 서기로 각각 성별 되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발전하여 현 총장과드 구건물 3층을 전세로 빌려 이사를 하였습니다. 2층에는 "마로니에"라는 음악 감상실이 있어서 일요일날 예배를 보는데 어려움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후 광주 지부는 보다 넓은 열건물을 빌렸다가 다시 구건물 3.4층을 빌렸고 1975년 경에 그 건물을 포함한 현 교회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건물로 전전하다가 우리 교회 건물을 갖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컸습니다. 광주 지부는 초기에 한국 지방부에 속하였다가 뒤에는 남부 지방부에 소속 되었습니다.

남부 지방부 본부가 부산에 있었으므로 지방부 대회가 있었을 때에는 부산 까지 여행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완행 열차 뿐이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1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배영천 지방부장님과 그의 보좌배수열 형제의 도움과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 1970년 호남 지방부가 조직 되었습니다. 지방부장에는 이재수 형제님이 성별 되었습니다. 호남 지방부는 다시 1973년 9월에 전주 지방부가 조직 됨에 따라 광주 지방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3년 3월에는 저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1년간 몸 담고 있던 교직을 떠나 교회 교육 기구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얼마간은 몹시 외로웠습니다. 40여명의 동료들과 일하던 직장을 떠나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교안을 준비하고 혼자 프린트 해서 '전주'며 '여수'며 '광주' '목포' 등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월례 직원 모임을 통해서 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광주 회원들 마음 속 소망은 스테이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신권 소유자를 성임하도록 힘쓰는 한편 매월 대신권 소지자들의 훈련 모임을 가졌

습니다. 이같은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80년 10월 25일에 드디어 광주 스테이크 탄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있기 까지 함께 수고한 많은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이재수 장로님 가족과 황선숙 자매님 가족 그리고 김양옥 자매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설혹 지금은 교회에서 뵈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분들이 그 당시 보여 주신 모범과 주님을 열심히 섬기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껏 충실히 복음 가운데 헌신하시는 회원들에게는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3. 잊지 못할 기억들

1966년 12월 3일에 있었던 첫 번째 침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는 표준 건물이 없어서 침례탕이 없었습니다.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강이나 시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반 목욕탕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함석으로 침례탕을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틈새를 솜과 빠대를 발랐으나 막상 물을 붓고 침례를 주려 할 때 마다 물이 자주 새어 나와서 자주 물을 더 부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열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도 침례식에서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80년 10월 25일 광주 스테이크는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첫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그 해 10월 25일, 26일 양일간 김볼 대관장님을 모시고 청운 와드 뜰에서 지역 대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모임을 마친 광주 회원들은 청운 와드 예배실에 따로 모이게 되었고 형클리 장로님의 감리로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평년과는 사뭇 달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날씨가 추운데다가 전기 마저 나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촛불을 켜고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제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성별 되었고, 박하천 형제님이 제1보좌로, 정재훈 형제님이 제2보좌로 성별 되었으며, 이범태 형제님이 축복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크가 이같이 조직 될 수 있었던 것은 수 많은 회원들의 실질적인 노력

도 있었으나 회원들의 신앙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거의 매일 아침 조선대 뒷산에 올라가 스테이크 조직에 관련하여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였지만 주는 우리의 간구를 돌아 보아 주셨습니다.

제가 부산 선교 부장으로 부름을 받음에 따라 우리는 1981년 5월17일에 스테이크를 재조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5월18일 이라서 시내 어느 곳에서도 집회 장소를 빌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득이 교회 뜰에 차일을 치고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중간 쯤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감리하시던 총관리 역원은 염려가 되어서 건물 안으로 회원들을 들어 가도록 하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 하였으므로 괜찮을 것 같다고 답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임은 무사히 끝났고 그날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부득이한 일이었으나 관리 역원을 심려케 해서 죄송스

러웠습니다. 그러나 날씨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4. 끝을 맺으며

제가 광주 지역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조금 먼저 교회에 들어 온 것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광주 지역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광주 교회는 지금껏 충실한 회원들과 지금은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지만 어느 한 시기라도 충실했던 모든 회원들의 신앙과 믿음과 희생의 총화일 것입니다.

광주에서 교회가 시작 될 때에는 광주 인구가 40여 만 명 이었으나 지금은 120여 만 명이 되었습니다. 삶의 양상도 꽤 달라졌고 영적인 삶을 해치는 유혹도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와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의 일을 수행할 때나 자신

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가정이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권고 대로 행하는 것 이외의 길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 선언문은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리들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 적용 시키지 않는 한 가족 선언문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교훈 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교리 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값진 진주와 그 속에 포함된 신앙개조도 이 선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사랑하며 이 예언자의 권고에 충실히 따르고 싶습니다. □

신임 성전 선교사

Douglas W. Clayson
/Orlene M. Clayson
(클레이슨 부부)

해임 성전 선교사

이상철
/이근순 부부
(1996년 2월 20일-1997년 9월 30일)

김영수
/김진자 부부
(1996년 4월 15일-1997년 10월 16일)

역원 변경

서울 스테이크
신당 워드 감독: 김승겸
(전임자: 박삼곤)

강서 스테이크
화곡 워드 감독: 전우식
(전임자: 변만영)

안양 스테이크
군포 워드 감독: 박호순
(전임자: 조광열)

전주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 이호중
(전임자: 김종갑)
1보좌: 이철호
2보좌: 이현주

광주 스테이크
풍향 워드 감독: 윤영동
(전임자: 조용현)

부산 서 지방부
구포 지부 지부장: 이진만
(전임자: 안재석)

원고 모집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1. 기사

- 내용: 스테이크/지방부, 워드/지부의 특별한 행사, 회원 동정, 간증, 개종기, 시
- 분량: 기사—A4지 반매, 간증—A4지 1~1.5매
- 마감일: 매월 5일

2. 기사 송고 방법

- 성도의 벗 기사는 가능하면 컴퓨터 통신(Hitel: kdschrch)으로 보내 주시거나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입력 해서 디스켓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벗 편집실 앞
우) 133-600
Fax: 02-254-3225

물론 교회와 그 성도들

-세계 최대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표지 기사로 교회를 소개함-

올해는 말일성도 개척자들이 박해를 피하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서부로 대이주를 한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금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국의 언론 매체들의 엄청난 긍정적 관심과 주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트리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력 있는 신문들이 대개 1면 머리 기사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를 보도하였다. 또한 미국에 두 개 밖에 없는 전국지인 월 스트리트 저널과 유 에스 에이 투데이도 물론에 관한 기사를 크게 다루었는데, 특히 월 스트리트 저널은 사실 면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150주년과 관련하여 행한 말씀을 그대로 실기도 하였다. 7월 19일 전세계 봉사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 신문들이 크게 다루었는데 예를 들어 미국 북부 버지니아에 있는 맥클레인 스테이크의 와드 별 봉사 활동은 4개의 지역 신문들이 보도했다. 한편 방송 매체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개척자 150주년 기념 행사를 보도했다. 전국적인 상업 방송망을 갖고 있는 NBC, ABC, CBS, 등의 교회에 대한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인 공익 방송망을 갖고 있는 PBS는 "희망의 이주(Trail of Hope)"라는 두 시간 짜리 다큐멘타리를 전국에 방영했다. 이 방송은 물론들의 서부 이주를 미국의 정신적 바탕이 만들어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대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교회 150주년 위원회 위원장이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말을 빌면 "금년과 같이 교회가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은 없다. 금년에 보도된 분량은 지난 150년간 보도된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할 정도이다.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언론의 관심을 놓고 금년이야말로 21세기를 앞둔 이 교회가 세계적 종교로 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언론 보도의 백미는 8월 4일자 타임지 기사였다. 전세계에 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내에서만 400만 부를 발행하는 타임지는 세계적인 종교로 비약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 표지 기사로 다루면서 무려 10면에 걸쳐 교회의 활약상과 그 발전의 원동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물론 교회와 그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진 기사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

오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람들은 사이에 복지 광장이라고 불리는 구역에는 밀이 가득 들어 있는 15개의 기둥 모양 곡물창고(사일로)가 서 있다. 여기에는 작은 도시가 6개월 간 먹을 수 있는 양인 1천 9백만 파운드(약 8600톤)의 밀이 저장되어 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밀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도 팔지도 남에게 주지도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모퉁이에는 감독의 창고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물건들은 모두 남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선반 위에는 물론 교회에서 생산한 데저레트라는 상표가 붙은 세탁 비누와 아이 다호주 보이즈에 위치한 교회 식품 공장에서 만들어진 데저레트 상표의 복숭아 통조림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다. 그 옆에는 샌디에이고의 교회

소유 공장에서 생산된 데저레트 참치 통조림이 있고 또 아이다호 주 교회 농장에서 생산된 콩과 데저레트 땅콩 버터, 데저레트 푸딩도 있다. 이 물건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단지 거대한 물론 복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교회의 복지 시스템은 아마도 이 나라의 복지 관련 조직 중 가장 큰 민간 복지 조직일 것이다. 이 물건들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면 창고는 새로운 물건들로 보충이 되고 그러면 그 보충된 물건들은 또다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한 세기 이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은 사람과 우주를 바라보는 그들의 견해가 주위 사람들의 그것과 달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그들을 나라 안의 또 다른 나라로 간주하였고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급진 공동체주의자들로, 그리고 미국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부다처주의자들로 보았다. 인쇄

물에 의한 공격을 받고 폭도들에게 신체적인 괴로움을 당하면서 30,000여명의 물론 신자들은 그들의 꿈의 도시였던 일리노이 주 나부를 떠나 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암살 당한 교회 창립자의 후계자의 인도를 받아 그들의 믿음만큼이나 어리석다고 조롱을 받았던 1,000마일의 서부 이주길에 올랐던 것이다.

올해 그들의 처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다. 지난 화요일에는 과거의 험난한 서부 대이주를 재현한 행사로써 햇빛에 그들은 밝은 얼굴을 한 200명의 말일성도들이 150년 전 바로 그 날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전하는 바 브리감 영이 "여기가 바로 그 곳이다"라고 선언하였던 그 지점에 200명의 무리가 도착하자 50,000명의 환영객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즐겁게 맞아 주었는데 이 행사는 수백만 명이 함께 지켜 본 행사였다. 전국적 시청자를 가진 수많은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들이 큰 관심을 갖고 이 행사를 보도했다는 점은 오랜 진실 하나를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물론 신앙이 다른 것들과는 다른 특이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이 땅은 그들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들을 국민 정신의 이상형으로 받아들이게, 아니 떠받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사학자 켄 쉘스는 물론들은 1950년대부터 비방의 대상에서 벗어나 존경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회는 가정 중심, 명쾌한 낙관주의, 정직성 그리고 적극성이 결합된 그들의 특성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하원을 합하여 열다섯 명이나 되는 물론 신자 국회 의원들이 지금 의회 복도를 분주히 오가고 있다. 물론 신자로서 저술가이며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는 5년간이나 베스트 셀러 명단에 오른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이 물론 신조의 일부를

소개한 바 있다. 미국의 FBI와 CIA는 물론 신자가 부정 없는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착안해 그들을 직원으로 유치하는 계획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몰몬 교회는 수적으로 보아 지금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종교들 중 가장 성공한 종교이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이다. 미국의 신자 수 480만 명을 보면 미국에서는 일곱 번째로 큰 교파이며 미국 내의 성장률은 년 4.7%에 달하는데 해외에서의 성장률은 거의 그 두 배에 달하여 해외의 신자 수는 이미 490만 명을 넘어섰다. 교회의 대관장이며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는 거대한 해외 교회 건축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는데 매년 350개의 교회건물을 짓고 대성당 크기 만한 성전 건물을 현재의 50개에 더해 한 해에 15개씩 새로 만드는데 수십억불을 쓰고 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앞으로 83년 후인 서기 2080년에는 세계적으로 몰몬 신자의 수가 2억 6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교회의 물질적 성장은 그 복음적 성장에 비견할 만큼 성공적이다... 현재 교회의 자산은 최소 300억불에 달한다. 만약 이것을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59억불에 달하는 이 교회의 연간 수입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중간 정도에 속한다. 기업 순위 말고 다른 면을 보면 깨끗한 거래, 드높은 사기, 자선 기부(비신자들에게까지 이르는), 어떤 주주 집단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고위 지도자들의 회계 처리에서의 깔끔함 등 모든 관점에서 최우량 기업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육우 목장은 텍사스 주에 있는 킹 목장이 아니라 플로리다 주 올란드 부근에 있는 데저렛 캐틀 앤드 시트러스 목장이다. 그 크기는 312,000 에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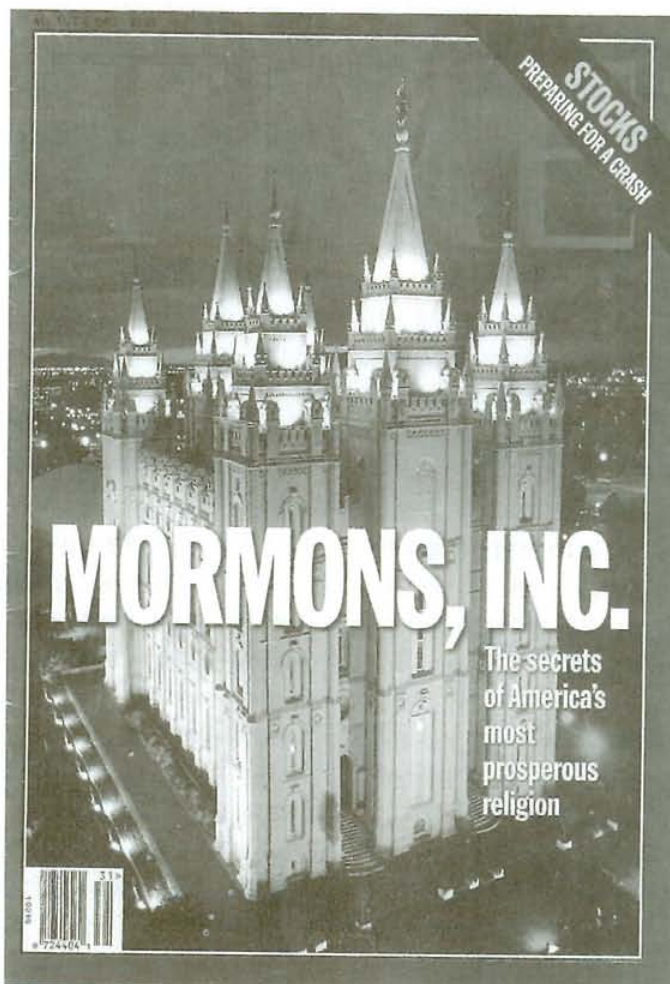
(약 3억 8천만 평)이며 부동산 가치만을 따지면 8억 5800만불에 달한다. 이 목장은 모든 지분을 몰몬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미국 최대의 견과류 생산 업체인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애그리저브사도 역시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14번째로 큰 방송망인 보너빌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과 16억불의 자산을 가진 베네피셜 생명 보험 회사도 역시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본부를 둔 몰몬 교회보다 더 부유한 교회가 몇몇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말일성도들만큼 물질 생활에도 적극적인 주류파 교회는 없다. 신자 일인당으로 계산할 때 몰몬 교회만큼 물질 면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교회는 없다.

몰몬 경제와 다른 교파 경제의 첫번째 차이는 십일조에 있다. 대부분의 교파는 주 수입원이 헌금이다. 물론 아주 드물게는 신자들에게 10%의 소득세와 같은 십일조를 내게 하는 교회도 있다. 몰몬 교회에서는 개별 교회마다 십일조를 받는데 일요 예배 후 개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각 개인들이 십일조를 전달한다. 교회와는 독립적인 몰몬 잡지 선스톤의 편집장 엘버트 페크의 말과 같이 "다음날인 월요일까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당국은 건져진 십일조를 몇 센트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돈이 은행에 완전히 입금되었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입금되는 액수는 엄청나다. 지난해 1996년

에 십일조로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계정에 입금된 돈은 52억불에 달하는데 그 중 49억불은 미국의 몰몬 신자들이 낸 것이다.

그러나 몰몬이 다른 교파와 정말로 다른 점은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에 있다. 다른 교파에서는 헌금을 직원의 인건비, 자선 구호, 교회 건물의 신축과 유지에 지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교파의 지도자들은 일정 금액을(복음주의 루터교의 경우는 1억 5200만불) 연금 기금으로 투자하는데 투자 실탁이나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주식에 분산 투자하게 된다. 그 바탕에 깔린 철학은 투자를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루터교 목사 마크 말러-건더슨의 설명을 빌리면 "우리의 청지기 직분은 교회를 사업을 통해 키우는 것이 아니다"로 집약할 수 있다.

몰몬은 다른 종류의 청지기들이다. 그들의 자선 구호 관련 지출과 성전 건설은 놀라울 따름이다. 다른 교회들이 한 해에 걷은 헌금 수입을 그 해에 다 써버리는 것에 비해 말일성도들은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타임지의 계산으로는 투자액이 적어도 6억불을 넘는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이 돈을 다른 사람들 소유의 회사채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교회 소유 영리기업에 투자하는데 농업, 언론 매체, 보험 회사, 여행업 및 부동산업에 가장 큰 액수를 투자하고 있다. 교회 상업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저렛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은 미국 최대의 목장의 하나인 데저렛 목장을 포함하여 49개의 농장과 목장을 갖고 있다. 보너빌 인터내셔널 그룹과 베네피셜 생명보험회사 외에 교회는 유타 주 최대의 백화점망인 지씨엠아이(ZCMI)의 52%의 주식을 갖고 있다. 모두 합치면 타임지 추산으로는 교회의 농장과 금융 관련 분야 투자는 110억불에 달하며 투자에 따른 교회의 수입(십일조 및 현금



△ 솔트레이크 성전을 배경으로 한 8월 4일자 타임지 표지.

표제를 그대로 번역하면 '몰몬 주식 회사'이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적으로 성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방법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은 6억불을 넘는다...

워싱턴 주립 대학교 사회학자 스타크는 교회 안에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고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사실상 교회에는 직업으로서의 성직자가 없고 성직은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주어지며 회중을 관리하는 감독 역시 자기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는 평신도 중의 하나이다.) 종교 평론가 중에는 신학적으로 설명할 것이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평신도에 의한 교회 운영은 신학적인 진공 상태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타크는 대신에 물론 교회의 방법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달려온 경험 많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 소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택하겠는가? 그들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유능한 사업가들이다." 데저렛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을 움직이고 있는 로드니 브레이디는 유명한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거대 제약회사인 버겐 브런스위그의 수석 부사장을 지내고 연방 정부 보건 교육 복지부에서 1970년에서 1972년까지 차관보를 지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고위 관리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스테이크 부장(대략 대주교와 같은 직책이다) 토니 번스는 마이에미에 본부를 둔 트럭 렌탈 기업 왕국인 라이더 시스템스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리고 존 헨츠맨이 있다. 능력 있는 "지역 관리 역원"인 헨츠맨은 (지역 관리 역원은 보통 십여 개의 스테이크로 구성된 지역을 관할하는 교회의 고위 직책임) 공식적으로 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그는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일에 많은 돈을 쓰는 전형적인 물론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젊었을 때에 열정적인 선교사였던 그는 42세에 또다시 수도 워싱턴에서 220명의 선교사를 관리하는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는 근무하던 회사에 장기 휴직원을 내고 부인과 9명의 자녀를 데리고 임시로 부임했다. 그는 임기를 끝내고 유타로 다시 돌아와 사업을 일으켜 현재 매출액 50억불, 종업원 1만 명에 달하는 화학 회사인 헨츠맨 케미컬 코퍼레이션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순이익의 극대화였던 사업의 목표를 10년 전에 부채를 완전히 없애는 것,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이 되는 것, 그리고 고등만을 사람을 구하는 것 세 가지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의 회사는 이익 중 1억불의 돈을 유타 주립 대학교 암 연구 센터에 기증했다. 그의 회사는 1988년 지진으로 집을 잃은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건축 자재 공장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는 아동 병원에서부터 구호 식량 배급소에 이르기까지 작은 규모의 자선 구호 기관에도 넉넉한 기부를 하고 있다. 기업 목표를 바꾼 후의 결과를 헨츠맨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 큰 성취감과 열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단합과 팀워크와 사기는 이처럼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중 15시간 내지 20시간을 무보수의 성직자로 일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나는 나의 생활과 기업 활동을 종교적 신념과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들의 사업적 성공을 그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다. 원죄가 없다고 믿는 것은 죄책감 없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이즘이 개종자들에게 주는 매력과 그 재정적 성공은 헝클

리 대관장의 말을 빌자면 "사회성", 즉 비 물론이나 다른 종교적 세계에서는 흔치 않은 공통적 목적에 대한 강한 집착(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충성이라고 덧붙인다)에 기인하는 것 같다. 미국의 어떤 다른 주류 교파에서도 물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신자를 매달 다른 신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로 돕도록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다른 교파에서는 미국인들이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물론들과 같이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물론을 이단이라고 선언하였던 무리에 속한 제프리 실리먼 목사는 물론들이 "순결, 신뢰, 정직, 그리고 근면과 같은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갖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종교 집단으로서 구성원들을 그렇게도 잘 돌보고 있는 물론들의 단결력을 가지고 시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교회는 회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 우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친다. 만일 그것에도 실패하면 그가 속한 지역 교회의 감독은 현금이나 전국적으로 100여 개나 되는 "감독의 창고"에서 무료로 필수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게 된다. "감독의 창고"에는 데저렛 상표의 구호 물품이 가득 차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후한 도움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복지 시스템에는 97개의 고용 촉진 센터가 있는데 복지 담당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수혜자들은 일반적으로 10주 내지 12주 정도 동안 구호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300불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복지시스템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그 기금 조달 방법인데 예상과는 달리 기금은 십일조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회원들은 두끼를 굶고 그 돈을 복지시스템

에 내는데 오히려 이 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식을 통해 거두어진 이 돈은 각 지역 교회에서 갖고 있으면서 지역 교회 내에 있는 어 어려운 회원을 돌보게 된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한 사람은 선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신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자기 자신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전세계적으로 실천하려 하고 있다. 그는 그의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치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대한 해외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젊은 시절에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도 열성적이었던 물론 신자들이 거대한 재정력에 힘입어 유타나 콜로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전체에서도 그랬던 것과 같이 몇 세대에 걸쳐 브라질이나 필리핀에서도 교회를 존경받는 집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해외에서의 발전에 대한 교회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평론가 조엘 코트킨은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교회의 놀랄만한 조직적 자원과 현재와 같은 종교적 성공을 감안할 때 물론들은 다음 번의 거대한 세계 민족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믿는 바대로 지금까지 고대의 선지자들과 현대의 선지자들이 말해온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우리는 올해 물론 개척자들이 이곳에 도착한 1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쟁기가 한 번도 닿았던 일이 없었던 이 사막의 곡에 그 개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 이르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이보다도 더욱 굉장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리라 장담한다고 해도 결코 틀린 일은 아닐 것이다. □